제주에 크루즈 '속속'… 얼었던 시장 풀릴까

올 5월말 기준 17회… 입항객 수도 전년보다 늘어
멈춰선 중국발 크루즈선 대신 대만·일본발 증가세

제주항에 입항하는 중국발 크루즈는 여전히 전무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일본발, 대만발 크루즈선이 급증해 침체된 제주 크루즈 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크루즈선 입항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총 17회·2만6618명이 제주를 방문했다. 지난해 실적(20회·2만1703명)보다 입항 인원이 약 5000명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2017년 98회·18만9732명 ▷2016년 507회·120만9106명 ▷2015년 285회·62만2068명 ▷2014년 242회·59만400명 ▷2013년 184회·38만6139명 등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발 입항이 멈춘 가운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입항 크루즈선의 주요항로별로 보면, 월드와이드 7회, 대만발 3회, 일본발 2회다. 주목할 점은 대만발과 일본발 크루즈선 입항 횟수다.

대만발 크루즈선은 지난해 1회, 2015년 1회, 2014년 1회에 불과했다가, 올해 3회로 급증했다. 앞으로도 입항 계획이 잡힌 대만발 크루즈선은 7월 1회, 8월 1회 등으로 올해 최대 5회 제주항에 입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일본발 크루즈선은 지난 6일 입항 1회가 추가돼 17일 현재까지 총 3회 입항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의 입항 계획도 총 4회가 잡혀있어 최대 7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지난해 3회, 2017년 4회, 2016년 4회 등이 입항했던 것과 비교해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크루즈선 입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발 항로가 여전이 얼어붙어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입항 계획이 취소된 크루즈선은 총 229회로 이 중 중국발은 220회(96.0%)를 차지한다. 게다가 앞으로 입항계획이 잡힌 크루즈선 164회 중 중국발은 157회(95.7%)나 된다. 한중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은 사드 여파로 수년째 중지된 상태여서 대만, 일본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대만 현지에서 대규모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소진기자

"유수율 제고 손놨나… 물 부족 갈등 우려"

도, 2025년 80% 달성 목표
매년 600억 이상 투입 예상
도의회 "사업 추진 부진시 향후 제한 급수 불가피"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제주도 관계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증가하는 관광객 및 상주 인구수 증가에 대비해 유수율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예산 확보 불투명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제주의 인구수와 물사용량 등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준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유수율 70%를 달성해야 제주도가 계획한 인구 100만명에게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계량기까지 이르는 비율을 말한다.

제주도는 미래비전과 도시기본계획 등을 포함한 각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5년 상주인구 75만명과 체류인구 25만명를 합해 계획인구 100만명을 상정하면서 유수율 8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 45.4%인 유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2750억원의 재원투입이 요구된다. 현상유지 비용을 포함하면 2020년부터 매년 600억원 이상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들을 살펴보면 실현가능성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예결위전문위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블록구축(최적관리시스템) 상수도통계 자료에 제주도의 유수율 제고 노력은 전국과 비교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의 2018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57억원 중 45.4%만 집행되고 85억원이 이월되고 있다. 이처럼 유수율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2025년까지 유수율이 70%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인구가 100만명에 이를 경우 제주도 전역에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원희룡 지사는 유수율 조기 제고를 위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 있으나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며 "유수율 제고사업을 현재와 같이 추진하다가 인구 100만명 시대가 되면 물 부족으로 인해 현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도민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은지기자

"29억 들여 사놓고 부적합 건물… 도 여성가족연구원 이전 무산"

고현수 위원장, 책임 소재 추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여가원) 이전을 위해 매입한 건물이 구조적 문제로 활용 계획이 무산되면서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여가원만의 독립적인 연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9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제주시 삼도2동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했다. 하지만 주차장이 지하에 조성돼 있음에도 승강기가 없어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 미흡했다.

관련해 17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장은 "연구원 청사 매입과 리모델링 과정에서 벌어진 에너지낭비, 행정오류, 정책판단의 미스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건물을 매입했지만 결국 여가원 청사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의 기준은 장애인을 비롯한 접근약자의 접근을 배제한 것이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매입시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건물의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지휘
서울지검장 발탁 2년 만에
고검장 안 거쳐 '파격 승진'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날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윤 후보자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수원지검으로 좌천됐고,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고,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내년 총선 후보 기본교육 의무화"

민주당, 미이수 시 불이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당내 경선 모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기본 의무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과 교육연수원(원장 황희)이 마련한 '21대 총선 입후보자 대상 기본교육 계획(안)'을 추인,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자들 중 중앙당 자격심사를 마친 모든 예비후보들은 당이 마련한 총 10강좌의 기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총 10강 의무교육은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와 과제 ▷품격 있는 정치언어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성인지와 양성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소수자 배려 ▷공인으로서의 자질 등 공직자의 자세 교육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 이해 및 위반사례와 판례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선거사무 및 회계처리 ▷선거메시지와 연설 ▷후보자 이미지 메이킹 및 유권자 스킨십과 정치패션 ▷뉴미디어 및 SNS 활용법 등 선거마케팅 전략 ▷선거캠프의 구성 운영 조직관리전략 등 선거조직관리 등이다. 기본 의무교육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시기인 올 연말부터 실시되며 전국 단일 집중 방식의 합숙형 교육으로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본교육을 의무화 한 것은 후보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격과 정치적 자질을 갖춰 수준 있는 경쟁을 펼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부미현기자

광령초등학교총동창회
오름등반 및 회원 단합대회

평소 모교 및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동문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2019년 오름등반 및 회원 단합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문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2019년 6월 23일(일) 10:00
○집결장소 : 작은녹고뫼 입구 주차장
■행사계획 : - 제1부 녹고뫼 산행 (10:00~12:30)
- 제2부 오찬 및 노래자랑 (12:30~14:00)
■셔틀버스운행
- 1호차(구제주)
공설운동장 수영장 앞 09:00→무수천 09:30→작은녹고뫼 주차장 10:00
- 2호차(신제주)
한라대 정문 09:00→무수천 09:30→작은녹고뫼 주차장 10:00
- 3호차(광령)
광령1리 사무소 09:00→광령3리 사무소 09:10→고성1리 사무소 09:20→광령2리 사무소 09:30→작은녹고뫼 주차장 10:00
※개인별 차량이용 회원은 오전 10시까지 작은녹고뫼 주차장에 집결
■연락처 : 총동창회장 강기훈 010-7174-0821
사 무 국 장 신성필 010-2693-1858

광령초등학교총동창회
회 장 강 기 훈

방 수
- 폴리우레아방수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 쇼 날 F R P 페 인 트 총 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그랜드 보청기
호국보훈의 달 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최대 60% 파격 할인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